

『모로우 박사의 섬』에 나타난 동물 윤리와 감정 이입의 한계

구승본*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생체해부실험 논쟁과 동물 윤리
3. 인간우월성과 과학의 만남: 모로우 박사
4. 감정이입과 인간중심주의: 에드워드 프렌딕
5. 나오는 말

* 경상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koo@gnu.ac.kr

[국문초록]

본 논문은 H. G. 웰스의 『모로우 박사의 섬』을 인본주의적 관점과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감정이입의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19세기 유럽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생체해부 실험은 동물을 대상으로 잔혹한 고통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의 논란을 야기했다. 웰스의 과학 로맨스는 독자들에게 과학자는 실험동물들에게 감정을 배제하고 다루어야만 한다는 근거에 대해서

비판하도록 한다. 모로우 박사는 인간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인물로 과학은 궁극적으로 동물적 본능에서 자유로운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자아몰입적인 과학 탐구와 동물을 끔찍한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동물 윤리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인간이 비인간 동물들에게 가하는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명한다. 본 논문은 동물 윤리의 관점, 특히 타인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아를 연결시키는 시도라고 정의되는 감정이입의 개념을 통해서 소설의 등장인물이자 화자인 에드워드 프렌딕의 감정이입에 한계가 존재함을 밝히고자 한다. 타자가 고통 받는 현장에서 자아의 생명 보호를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 동물적 본능에서 자유로운 문명화된 사회를 지켜줄 것이라는 프렌딕의 인간중심주의적 태도가 그의 감정이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본 논문은 비판한다.

주제어 : H. G. 웰스, 모로우 박사, 생체실험, 인간중심주의, 동물윤리, 감정이입

1. 들어가는 말

H. G. 웰스(H. G. Wells)의 초기 작품 『모로우 박사의 섬』(*The Island of Doctor Moreau*)은 과학 로맨스로 알려진 작품이다.¹⁾ 전통적으로 로맨스 작품은 주인공이 낯선 장소에 감금되거나 생존을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일상 세계와 환상의 세계가 상호 교차하며, “동물이 유사인간이 되고, 인간은 동물로 바뀐다”(Atwood xix)는 특징을 갖는다. 이 같은 로맨스의 특징은 웰스의 이 소설에서 전형적으로 제시된다. 화자이자 등장인물인 에드워드 프렌딕(Edward Prendick)이 타고 있던 배가 남미의 태평양 연안에서 난파되어 표류하던 중 의사 몽고메리(Montgomery)와 생리학자인 모로우 박사(Doctor Moreau)가 탄 배에 구조된 후 그 이름이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로우 박사의 섬이라는 곳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프렌딕이 섬에서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모로우 박사가 동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체해부(vivisection) 실험이다. 그리고 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고통의 집’(the House of Pain)이라고 알려진 박사의 실험실에 갇힌 채로 잔혹한 실험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 박사의 실험은 동물이 신체적 특징과 행동에 있어서 인간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실험을 목격한 프렌딕의 공포와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인식 역시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어느 날 밤 실험실을 탈출한 퓨마 여성을 쫓던 모로우 박사는 그 퓨마에게 살해당하고 그 퓨마도 죽게 되는데, 그 이후 프렌딕은 짐승 사람들(Beast People)에게 모로우 박사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의 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섬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한다. 몽고메리가 살해당하고, 고통의 집이 불에 타

1) 마가렛 앳우드(Margaret Atwood)에 따르면, 이 작품이 출판된 1896년은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웰스가 토마스 헉슬리(Thomas H. Huxley)의 지도아래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은 작가의 과학적 지식이 작품의 구상 및 전개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빈센트 브롬(Vincent Brome)의 주장에 의하면, 헉슬리의 경우는 ‘다윈의 불독’(Darwin’s Bulldog)으로 알려질 만큼 그의 신봉자였고, 헉슬리의 가르침이 웰스의 소설 창작의 원천이 된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시켰다(Brome 35).

버린 후, 프렌딕은 뗏목을 만들어 섬을 탈출하고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구조되어 런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는 도시의 사람들에게서 짐승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도시를 떠나 시골 지역에 가서 과학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웰스의 이 작품이 출판되었을 당시의 대부분 비평가들은 작가의 환상적 상상력이 독자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기에는 충분하지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바질 윌리엄스(Basil Williams)는 웰스가 “생체해부의 혐오스러운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욕망”으로 가득차서 쓴 이 소설이 “예술적 실패”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한다(Parrinder 52). 웰스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비평가들의 일반적 폄훼에도 불구하고 R. H. 허튼(Hutton)은 『모로우 박사의 섬』은 인간과 동물의 신체 기관들을 결합하고 변경시킴으로써 생명체를 다시 탄생시키고자하는 “잔혹한 야망으로 대변되는 광신주의를 희화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또한 이 작품이 당대의 “생체실험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경멸하는 생리학자의 야심이 극악무도한”(Parrinder 47)것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라고 강조한다. 허튼은 당대 과학계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생체실험에 대해 작가 웰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작가가 생체실험에 대해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허튼의 해석은 이 작품을 당대 생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체실험의 논란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 이외에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과 동물의 존엄성과 같은 생명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독자들에게 숙고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명 윤리, 특히 동물 윤리²⁾ 분야에서 감정이입(empathy)³⁾이

2) 윤리 혹은 윤리학(ethics)은 철학을 도구로 사용해서 도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도덕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 도덕 기준 설정의 문제, 도덕 원칙의 정당화 문제, 도덕 가치의 선별 문제, 삶의 궁극적 목적의 문제 등을 다룬다.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위와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동물 윤리 분야에서 특히 인간중심주의의에 근거한 가치 판단을 비판하는 동물 윤리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것임을 비판하면서, 인간을 자아로, 비인간 동물들을 타자로 설정하

인간 사회에서 구성원 간 응집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의 상호이해의 표현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감정이입과 공감(sympathy)이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공감은 불행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타인에게 자아가 자신의 감정과 태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내가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인지하려는 태도는 아니다. 반면에, 감정이입은 “타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타인과 자신을 연결시키려는 태도”(Gruen, *Entangled* 39)를 뜻한다. 감정이입을 하는 자는 타인과의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공감과는 달리 타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그레첸 브라운(Gretchen Braun)에 따르면, 웰스의 『모로우 박사의 섬』은 인간이 생체해부 실험의 대상이 된 동물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강한 본능적 반응이 바로 감정이입임을 강조하는 소설이다. 이성을 통한 자기 통제 방식이 가장 영국적이고 가장 남성적인 특징으로 여겨졌지만, 인간이 고통 받는 동물에게 표현하는 감정이입이야말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구분을 넘어서 상호 간 “동류의식”(kinship)을 가능하게 해 준다(501). 그러나 프렌딕이 생체실험의 대상인 동물의 고통에 대해 표현하는 동류의식으로서의 감정이입이 과연 동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후 그가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투영된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한 감정이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앞서 허튼의 평가에서 주목했듯이, 본 논문은 웰스의 『모로우 박사의 섬』이 갖는 의의가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와 생명 윤리의 문제, 특히 비인간 동물에 대한 윤리의 문제에 천착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로우 박사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생체실험에 대해 프렌딕이 고통받는 동물에 대해 표출한 연민과 같은 감정이입은

는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동물들 역시 개별적 특성과 고유성을 지닌 객체라는 인식을 강조한다.

- 3) 영어 단어 ‘empathy’는 자신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이 되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감정이입’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성 및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 실험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핵심은 그러한 프렌딕의 감정이입은 동물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감정상의 반응에 불과하며, 결국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점을 통해 감정이입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간중심주의의 면모를 밝히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우선 19세기 유럽의 동물 대상 생체해부실험에 대한 논쟁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그리고 최근의 동물 윤리의 주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 실험의 논쟁과 동물 윤리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웰스의 작품 『모로우 박사의 섬』에서 과학적 합리성과 생체실험의 정당성을 강력히 신봉하는 모로우 박사와 동물대상 생체실험의 잔혹성과 동물의 고통에 대해 연민을 표하는 프렌딕을 통해서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입이 결국 자기 보호를 공고히 하려는 욕망과 의지를 통해서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보임을 강조할 것이다.

2. 생체해부실험 논쟁과 동물 윤리

19세기 이래로 생체실험을 포함해서 영국의 의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실험들은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고 과학 지식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은 인간을 위한 질병 치료 해결에 기여한다는 확신에서 출발해, 의료 과학에서 실험 및 치료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즉, 실험 및 치료 과정에서 대상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거나 여겨움을 표현하는 것은 과학자에게는 직업상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의료 과학계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동물대상 생체실험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제멋대로’(wantonly)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했다. 예를 들어 『동물학대 예방 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회장이었던 카나본 경(Lord Carnarvon)과 같은 학자들은

실험 대상의 “고통에 대해 느끼는 연민의 감정을 철저히 지워야 한다”(Bates 35)는 믿음이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에 의해서 동물상대로 한 생체실험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동물을 대상 실험은 “끔찍하고, 잔인하며,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행위로 “인간 본성에서 가장 사악한 모습 중의 하나”(Bates 49)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동물 실험의 잔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1876년에 생체해부법안(the Vivisection Act)이 통과되어 “생체실험은 오로지 독창적이고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만 실행되어야 한다”(Bates 45)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비록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은 이 법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했지만, 사적인 의료 연구와 교육을 목적인 동물대상 생체해부 실험은 금지되지 않고 여전히 시행되었다. 마취(anaesthesia)를 통한 실험은 언뜻 보기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방책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사용한 독일의 미생물학자 엠마누엘 클라인(Emanuel Klein)은 사실상 마취는 동물의 고통을 완화시켜줄 목적이 아닌 “특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실험가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동물이 무엇을 느낀다거나 고통 받는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Bates 47)고 주장했다. 클라인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동물에 대한 생체실험을 강력히 옹호하는 입장은 1865년에 출판된 『실험 의학 연구서론』(*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xperimental Medicine*)의 저자인 클로드 버나드(Claude Bernard)에게서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이상적인 과학자는 실험 대상인 동물이 겪는 고통과 흘리는 피에 대해 의식하거나 어떠한 연민도 갖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과학적 사상과 문제 해결에 몰입해야 한다.

생리학자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추구하고자 하는 과학적 사상에 몰입하는 과학자이다. 그는 더 이상 동물들이 내는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동물들이 흘리는 피를 보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사상에만 주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감추고 있는 유기체들만을 감지한다.

The physiologist is not a man of fashion, he is a man of science,

absorbed by the scientific idea which he pursues: he no longer hears the cry of animals, he no longer sees the blood that flows, he sees only his idea and perceives only organisms concealing problems which he intends to solve. (Bernard 103)

동물대상 생체해부 실험을 찬성하는 과학자들은 생명과학은 오로지 실험을 통해서 정립될 수 있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희생시킨 후에야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물을 실험하고 그들의 생체를 해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지만, 실험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면” 동물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동물대상 생체실험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다(Bernard 102).

그렇다면 작가 웰스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체해부 실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그는 버나드와 마찬가지로 생체해부 실험을 포함한 동물 실험이 인류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동물들이 인간의 실험 대상으로 쓰이면서 고통을 느낄지라도, 그들의 고통은 대다수 인류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이라는 인간중심적이고 공리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의학 분야는 동물 생체해부 실험을 엄청나게 지지한다. 그 지지에 대한 증거로는 동물에 대한 생체해부 실험으로부터 얻은 의료 과학적 지식은 고통 받는 인간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정도를 다른 고통과 비교하거나 어떤 생명체가 받는 고통을 다른 생명체가 받는 고통의 정도와 비교해 보면, 생체해부 실험이 세상의 인류가 겪는 고통을 대단히 많이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The medical profession is massively in support of vivisection, and its testimony is that knowledge derived from vivisection has made possible the successful treatment of many cases of human suffering. So far as we can measure one pain against another, or the pain of this creature against the pain of that, vivisection has diminished the pain of the world

very considerably. (Harris 268)

웰스는 인간이 현실에서 지식을 키워가고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동물이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는 또한 생체해부 과정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동물의 기여는 고차원적 인간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뿐이다. 웰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비인간 동물은 인간과 비교하면 “단순화되고 제한된 능력을 지닌 형태의 축소판으로 열등한 존재들”(Harris 269)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웰스의 생체해부에 대한 지지는 앞서 허튼이 웰스의 작품이 동물해부실험을 희화화하고 반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해석한 것과는 반대된다. 웰스는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받는 고통과 동물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함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물들의 고통이 결국 인류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동물 대상 생체실험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드러낸다.⁴⁾

19세기 말 영국의 과학계에는 진화론적 발전에 근거해서 문명인들과 야만인들 사이에서 고통의 민감성이 크게 차이난다고 믿었다. 그 당시 과학계에는 “문명화된 서구인들보다 진화의 단계에서 열등한 존재들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느낌에 더욱 둔감하다” (Bending 123)는 논리가 지배했다. 고통과 같은 느낌에 대한 감수성은 문명화된 서구인들에게 가장 발달되어 있고, 야만인들을 포함해서 다른 인종들에게 그 성질은 열등하게 나타난다는 감정의 위계서열은 타 인종에 가하는 서구의 폭력과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담론으로 사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생체해부실험을 할 경우 동물이 느끼는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 실험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서구 과학의 담론의

4) 웰스는 「대중의 감정과 과학의 진보: 생체해부에 대한 반대」 (“Popular Feeling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ti-Vivisection”)라는 1928년에 간행된 글을 통해서 당대 생체해부반대론자들이 동물실험에는 반대하지만, 식육산업에 찬성하고 있는 위선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Linett 36).

바탕에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고, 작가 웰스의 소설은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잔혹한 행위뿐만 아니라, 여성, 하층민들, 비백인 등 서구 백인 남성에게 비해 열등하게 취급되는 존재들, 다시 말해 “대단히 인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는 부류”(Vint, “Animals” 91)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착취를 폭로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문명화된 사회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비백인 남성과 비서구의 집단을 비인간 동물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차별과 억압을 받는 인간들을 고통 받는 동물들과 동질화시키는 또 다른 인간중심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동물이 받는 고통의 문제 자체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 대신에 인간 사회와 문화 속에 존재하는 소위 타자의 고통 문제로 치환시키는 인간 위주의 판단이 중심이 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세기 후반 이후 최근⁵⁾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인간 동물이 인간의 복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톰 리건(Tom Regan)은 실험을 목적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비인간 동물은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종들의 복지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비인간 동물을 실험하는 행위는 잘못”(24)된 것이라 비판한다. 마크 번스타인(Mark Bernstein) 역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간에는 “도덕적 평등성”(viii)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인간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종속시킬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정의의 경계』(*Frontiers of Justice*)에서 동물의 권리라는 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역량(capacities)을 사용한다. 그녀의 “역량접근법”은 비인간 동물들이 추구하는 활동과 목적은 비록 서로 다를 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생명 유지

5) 동물 윤리가 학문적 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최근 약 50년 전부터이다. 이 분야에서는 비인간 동물들이 직면한 각종 위기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한다(Crary 1).

와 번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들은 다양한 유형의 “동물 존엄”(animal dignity)이 존재하고 그 존엄은 동물들의 근본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327).

19세기 유럽에서 동물에 대한 생체실험에 대한 논의는 과학적 객관성 증시와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 목적을 위해 동물생체실험의 정당화에 대한 주장과 동물 실험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혹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주된 논의는 야생에서 뿐만 아니라 도살장, 실험실, 사육장 등지에서 비인간 동물에게 가해지는 각종 고통의 행위대안 각성과 이렇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없애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Crary 1)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3. 인간 우월성과 과학의 만남: 모로우 박사

모로우 박사는 인간 이성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박사는 동물에게서 동물성을 없애고 그들을 이성적 존재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를 하지만, 그의 궁극적 의도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인간에서 인간 불완전함, 신체적 장애와 기형을 고치고자 하는 것”(Linett 55)이다. 모로우 박사가 시도하는 동물 개조 계획이 함축하는 것은 동물을 인간으로 변형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초월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인간 강화가 궁극적 목표가 된다. 이는 바로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이 정의한 바와 같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조건과 인간 신체의 유기적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고 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학제 간의 연구”(재인용, Vint, *After the Human* 20)이다. 인간 주체가 자립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행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유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트랜스휴머니즘의 바탕을 이룬다. 만일 모로우 박사가 다양한 생명체 종들의 신체 특성이 규범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다면, 생체해

부실험을 통해 동물을 인간과 같은 이성적 존재로 만들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생명체의 신체적 ‘증강’(enhancement)을 확신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시키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이다.

모로우 박사는 프렌딕에게 자신의 비인간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해부 실험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오류를 범하는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철저히 지배되고 행동하는 완전한 생물체를 만들려고 함을 강조한다.

내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뜨거운 욕조에 살짝 담글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번에 모든 동물을 태우고 말 것이다. 이번에 나는 나만의 이성적 생물을 만들 것이다.

Each time I dip a living creature into the bath of burning pain, I say: this time I will burn out all the animal, this time, I will make a rational creature of my own. (78)⁶⁾

모로우 박사가 실험을 통해 모든 동물을 태우겠다는 의지는 비인간 동물에게 있는 고유의 동물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의미한다. 동물의 고유성을 파괴하고 그 대신 인간의 이성을 비인간 동물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은 그가 인간 중심 사상, 인간 이성 중심주의에 의해 지배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서구 기독교 사상에서 창조주가 이성적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즉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열등한 비인간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합당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인간예외주의(human exceptionalism)⁷⁾의 표명이기도 하다. 인간 이성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가 “동물을 기계장치들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물이 고통 받을 때 내

6) 이후 작품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로만 표기한다.

7) 인간예외주의는 서구 기독교의 창조론에 입각한 사고방식이다. 이는 또한 데카르트의 합리적 영혼이 갖는 자율성을 신봉하고,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계와의 우월적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간예외주의는 모든 생명체가 외부의 물질계와 적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변화한다는 진화론적 관점과 대립된다(Gruen 224).

는 소리는 고장 난 기계가 내는 소음”(Aaltola 8)과 같다고 주장했듯이,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과학자는 실험실에 있는 동물을 감정과 느낌을 표출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닌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75)로 간주해야 한다.

모로우 박사가 만든 짐승 사람들은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 비인간 동물도 아니다. 그들은 두 존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성적 존재를 탄생시키겠다는 박사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결과물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애매모호한 경계에 위치한 “키메라들”(chimeras) (Linett 48)이다. 그들의 혼종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어디에서 본 적도 없는 생명체에 대한 기괴함과 동시에 인간의 신체적 특질로 인해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음이라는 묘한 감정을 일으킨다. 프렌딕이 모로우 박사의 배에 구조된 후에 몽고메리의 하인이자 짐승 사람들의 종류인 엠링(M'Ling)을 보고 검은 얼굴의 생명체가 지닌 기괴한 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프렌딕은 “전에 그렇게 혐오스럽고 괴상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확실히 모순되기는 하지만, 나는 동시에 현재 나를 놀라게 만든 저 모습과 몸짓을 어느 정도 확실히 접해 본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14)고 증언한다.

모로우 박사는 19세기 유럽의 생체해부학자들과 그 찬성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실험의 객관성과 사적 감정의 배제를 주장한다. 그는 살아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의 생체해부 실험에 대해 프렌딕에게 위와 같은 요지에서 설명한다. 그는 프렌딕이 생체실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잔인함에 대해 “젊은이다운 공포”(70)라고 칭하고 그것을 자기 앞에서 표출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생체해부 실험을 하는 과학자로서 그가 강조하는 태도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지적 탐구이다. 동물의 생체해부 초반에 이루어지는 “사소한 개조의 사례들”(71)에 대해 잔인함, 공포, 동물에 대한 연민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는 능숙한 생체해부 과학자가 아니다. 그는 동물에 대해 인간적 감정을 버리고, 보다 원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며 과학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음을 프렌딕에게 강조한다. 모로우 박사의 생체해부실험은 “절단, 혀 자르기, 절제술”과 같이 그가 말하는 단순한 수술 차원을 넘어서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피부와 뼈를 이식하는 것”(71)으로 그들의 행

동 방식을 변형시키고, 수혈을 통해서 동물의 신체에 생리학적이고 화학적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성장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박사는 프렌딕에게 그가 평생 실험하는 동안 생명의 윤리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가 실험에 임하는 기본 정신은 “자연이 인간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연을 무자비하게 다루어야 한다”(75)는 것이다.

그의 생체해부 실험은 자본주의 생산의 논리 구조 속에서 작동하면서 동시에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통제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해 온 이 작업을 “생물 형태의 가소성에 대한 연구”(71)라 칭한다. 한 대상이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 ‘가소성’(plasticity)은 생명체가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양상 혹은 진화를 통한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모로우 박사는 생체실험을 통한 작업의 결과물을 “제조된 괴물들”(monsters manufactured)(71)이라 일컫는다. 그는 ‘제조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마치 무생물인 가공품처럼 취급한다. 박사의 과학 실험은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체제 속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구조의 논리와 담론에 의해 침윤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동물실험이 정당화되고 도구화된다는 논리는 모로우 박사가 신봉하는 과학의 객관성 유지라는 직업적 의식과 인간 지식의 발전 그리고 인간에게 극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⁸⁾

모로우 박사는 또한 실험의 결과물들을 ‘괴물들’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그 결과물의 속성이 추하고 열등하며 인간을 상대로 공격성을 표출

8) 엘리사 애틀라(Elisa Aaltola)는 『동물의 고통』(*Animal Suffering*)에서 동물의 윤리에 대한 현대 사회의 양가적 태도를 지적한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화 과정에서 동물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도덕적 문제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고려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실험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동물이 겪는 고통은 우리 사회가 제거해야만 하는 악의 문제이다. 상업 논리가 지배하는 진영에서는 생산과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물을 “사용”(use)하는 것이 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동물이 “남용”(abuse)되는 것이다(2).

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스러운 대상임을 강조한다. 박사가 외딴 섬의 실험실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체해부 실험은 누스바움이 말하는 동물의 “신체 완전성”(395)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것이 옹호하는 동물의 권리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 그의 실험은 동물이 고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간섭이 아니라 그들 고유 능력을 말살시켜서 박사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종간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비인간 동물 고유의 특성, 그들의 본래 역량을 말살시킨 채 그들을 감금하고 그가 설정한 법에 따라 그들을 통제하고자 한다.

모로우 박사는 생체실험을 통해서 비인간 동물을 신체적으로 개조화 인간화시키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행동까지 지배하려고 한다. 원인(Ape Man)에 의해 이끌려 간 곳에서 프렌딩은 모로우 섬의 법이 마치의 종교의 율법처럼 짐승 사람들에게 의해 마치 호칭 기도(litany)의 형식으로 외쳐지는 광경을 목격한다. 집단적 구호에서 강조되는 “법”(the Law)(58)과 절대적 권위자이자 능력자이고 창조자로서 모로우 박사는 “그 손”(the Hand)(59)이라는 환유로 치환되어 칭송된다. 박사는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비감정적인 과학실험이라고 말하는 동물 대상 생체실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들의 “왜소한 뇌에 박사에 대한 일종의 신경화를 주입시키는”(59) 세뇌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법을 어기고 도망가는 존재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의 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뇌에 각인시킴으로써 가시적으로 드러난 고문의 장소인 고통의 집과 더불어 비가시적인 법의 주문을 통해서 그의 전체주의적 통치성이 가동되는 체계를 구축시킨 것이다. 섬에서 짐승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로 군림하고 계몽주의 과학의 선봉장으로서 비인간 동물들에게 고문을 가한 모로우 박사는 그의 가학적 고문의 대상이었던 퓨마 여성의 소위 “정의로운 행위”(Hoad 208)⁹⁾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짐승 사람들에게

9) 네빌 호드(Neville Hoad)에 따르면, 작품에서 가장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는 퓨마 여성이다. 모로우 박사가 비인간 동물들에게 행한 생체해부 실험은 인류 역사적으로 서구 유럽의 백인이 피식민지국가의 원주민들에게 가한 폭압에 상응하고, 이러한 식민 제국주의의 정점에 위치한 모로우 박사를 살해한 퓨마 여성은 섬에서 동물들에게 해로움을 가한 악을 제거한 정의구현의 존재로 평가된다.

즉각적인 자유나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지 못하는 이유는 프렌딕이라는 또 다른 인간중심주의의 사고에 입각해 행동하는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프렌딕의 시각을 통해서 모로우 박사의 생체실험의 잔혹성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러한 비판을 제기한 주체에게 존재하는 감정이입의 한계적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4. 감정이입과 인간중심주의: 에드워드 프렌딕

웰스의 『모로우 박사의 섬』은 비인간 동물에 대한 생체해부 실험을 통해서 이성적 인간을 탄생시키려고 한 모로우 박사의 시도 과정에서 그 실험의 잔혹성에 대한 지적과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 부각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허튼의 평가처럼 생체해부 실험에 대해 반대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작품으로도 해석되었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작품의 서술자 프렌딕이 모로우 박사의 실험의 실상을 목격한 후에 느끼는 감정과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프렌딕이 동물의 고통에 대해 연민과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생체실험의 잔혹함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몽고메리와 함께 한 점심 식사 때 밖에서 들려오는 생체해부 실험 대상인 퓨마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대해 “고통이 소리로 표출되고 우리의 신경이 떨리게 될 때야말로 이러한 동정심이 생겨서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38)라고 표현한다. 프렌딕이 모로우 박사의 생체실험 대상이 된 퓨마의 고통소리를 듣고 연민의 감정을 느낀 장면은 그가 동물이 인간의 목적에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심각하게 제기했다기보다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고통 받는 퓨마의 감정을 대리로 경험하는 감정의 전이로서의 공감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⁰⁾ 프렌딕은 폴 화이트가 비판한 “자연스러운 공감능

10) T. J. 캐스퍼바우어(Kasperbauer) 따르면, 감정이입은 “감정의 나눔”(emotion-sharing)(818)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다른 존재의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대리 감정”(vicarious emotion), “감정의 전이”(emotional transfer), 혹은 “감정적 공명”(affective

력이 마비된”(75) 생체해부실험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적어도 동물이 겪는 고통의 상황을 상상하는 감정적 공감을 할 줄 아는 인간이다.

그는 박사의 실험이 잔혹하면서도 동물이 받는 고통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박사와 그의 조력자 몽고메리를 “이 역겨운 악당들”(52)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문을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52)이라고 표현할 때,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게 가하는 행위가 살인 행위 이상으로 더 비열하고 극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표범 인간(the Leopard Man)이 포획되고 고통의 집으로 돌아가 고문당할 상황에 처하자 표범 인간을 총으로 쏘 안락사를 시킨다.

그러나 프렌딕의 감정적 공감은 인간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감정이입¹¹⁾이자 최근의 동물 윤리학자들이 옹호하는 동물의 권리와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불완전한 감정이입이다. 무엇보다 박사의 실험에 의해 개조된 잡종적 존재에 대한 그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다. “인간이 만물의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모든 만물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인간 중심적”(Gruen 47)판단과 담론 그리고 행동이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프렌딕의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는 우선 짐승 인간들의 외모에 대한 그의 느낌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특히 몽고메리의 조수이고 짐승 사람들 중 가장 인간에 근접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엠링(M’Ling)에 대한 프렌딕의 평가를 통해 이 소설은 인간중심적 관점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렌딕은 몽고메리와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에게 왜 엠링이 뾰족한 귀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엠링에 대해 그가 받은 인상은 부자연스럽고 악마의 기운을 느끼게 해 준다고 말한다.

그가 그것이 내 근처로 다가왔을 때, 그것은 내게 작지만 끔찍한 느낌, 내 근

resonance)라고 칭할 수 있다(818).

- 11) 폴 블룸(Paul Bloom)은 감정이입을 타인이 경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혹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기라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감정이입은 편향된 것이고 편협한 지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방향으로 인간을 내몰아간다”고 판단한다(9).

육이 조여지는 느낌을 주었다. 그 느낌은 사실상 악마와 같은 것의 접촉이었다.

It gives me a nasty little sensation, a tightening of my muscles, when he comes near me. It's a touch ... of the diabolical, in fact.” (37)

프렌딕은 엠링을 “그”(he)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인간성을 강조하지만, 그의 존재가 그에게 전해 주는 느낌인 “그것”(It)과 동일시함으로써 인간과의 관계에서 엠링의 정체성은 비인간적이고 악마의 존재임을 부각시킨다. 프렌딕이 엠링에게서 느낀 감정은 동일하게 다른 짐승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는 섬에 있는 잡종적 존재들인 짐승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부자연스럽고 기괴하며 끔찍한 존재라는 인식을 강조한다. 숲 속에서 그가 목격한 “사람이지만 비인간의 얼굴을 한 존재”(41)에 대해서 도대체 그는 “사람인가 짐승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자마자 바로 그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물”(43)이라고 칭하고 그것이 자신을 공격할 용기는 없으므로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에게 그 사물은 인간의 관점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그 나름의 고유성을 갖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41)일 뿐이다.

프렌딕의 인간중심주의적 판단과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생체 해부실험을 당하는 퓨마의 신음소리를 듣고 연민과 실험의 사악함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의 생명 역시 위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느 날 혼자 방에서 식사를 하던 프렌딕은 신음소리를 듣고서 밖에 나간 후에 모로우 박사의 생체실험 장면을 목격한다. 이를 눈치 챈 박사가 몽고메리에게 “한 평생의 작업을 망치다니”(51)라고 말하자, 프렌딕은 곧 바로 “갑자기 내 마음에 들이 닦친 공포는 내가 위협할 수 있겠다는 분명한 인식으로 요약되었다”(51)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安危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는 동물이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다. 그러나 생체실험의 대상이 된 채 묶여 있는 퓨마를 보자 그는 동물에 대한 감정이입보다는 자신이 박사의 실험실에서 퓨마가 묶여있는 틀에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는 비인간 동물인 퓨마를 대상화

시킴과 동시에 그가 동물적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대상으로 강등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프렌딕의 감정이입을 압도하는 그의 인간중심주의적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그가 몽고메리와 엠링과 함께 사라진 모로우 박사를 찾아 나섰을 때, 박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원인(the Ape Man)과 털복숭이 회색 것(the Hairy Grey Thing)으로부터 들었을 때이다. 그 소식에 프렌딕이 보인 첫 반응은 박사가 죽지 않고 그가 변신을 한 채로 짐승 사람들을 여전히 감시하고 있으며, 여전히 모로우의 법이 존재한다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그는 모습을 바꾸었다. 그는 몸을 바꾸었다”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분간 너희들은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 저기에 있다.” 나는 손을 위로 가리켰다. “그는 저 곳에서 너희들을 감시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너희들을 볼 수 있다. 법을 두려워하라.”

“He has changed his shape – he has changed his body,” I went on. “For a time you will not see him. He is ... there” – I pointed upward – “where he can watch you. You cannot see him. But he can see you. Fear the Law.” (103)

프렌딕의 의도는 바로 박사의 죽음으로 인해 짐승 사람들이 일으킬 반란과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모로우 박사가 퓨마를 생체해부 실험하는 모습을 목격한 프렌딕이 자신의 안위에 대해 우선 걱정을 하고 자신이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장면은 인간이 짐승에게 가하는 잔혹한 고통을 프렌딕 자신이 잠시나마 동물의 입장이 되어 그와 동일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로우 박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비인간 동물, 혹은 잡종 상태의 존재들이 그 동안 인간의 극한 지배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남은 인간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프렌딕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모로우 박사의 법에 의해 유지된

섬의 질서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프렌딕은 스스로를 죽은 모로우 박사와 동일시하게 된다. 그는 “자유와 문명을 수호하고자 하는 명분하에 잔혹함과 비인간적 태도를 순전히 도구 삼는 것”(Hoad 212)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인간중심주의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프렌딕은 모로우 박사와 동일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생체해부 실험에 대한 입장에서 박사와 프렌딕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작품의 서술자 프렌딕은 비록 그가 박사가 행한 잔인한 생체해부 실험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작품 후반부에서 합리적 사고와 판단력을 갖추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계몽적 주체에 대해 열망을 한다는 점에서는 박사와 동일시된다.

인간 문명사회로 귀환한 프렌딕은 사람들과 동료들의 모습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은 사람들의 다양각색의 모습으로부터 “어떤 합리적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차분한 권위”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마치 동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느꼈고 “섬 존재들의 망가진 모습들이 다시금 더 큰 규모로 재현될 것이라”(130) 느낀다. 이 대목에서 프렌딕이 말하는 ‘어떤 합리적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차분한 권위’는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작품 초반에 그와 다른 두 명의 동료가 탄 배가 난파되고 표류하면서 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을 죽이고 식량으로 사용하겠다는 식인의 제안과 그로 인한 생존의 다툼은 인간의 비인간성과 비이성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프렌딕이 바라는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비인간적 행위를 하지 않고, 이성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 통제적이며 자율성을 지닌 주체이다. 이런 인간은 니체의 초인¹²⁾과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따라 행동하는 자이다. 그러

12)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라는 그가 “인간들 사이에서 거닐 때 마치 동물들 사이에서 거닐는 것과 같다”(12)고 말한다. 이는 니체가 인간과 비인간 모두 동물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주장과 달리 니체는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단지 하나의 표현”(61)일 뿐이다. 즉, 인간의 영혼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육체와 물질계에서만 존립가능하다.

나 프렌딕 자신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대다수 보통의 인간 존재는 겉으로는 비인간 동물과 구별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동물적 본능이나 충동에 지배되기도 하고 합리적 이성을 갖추지도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일 뿐이다. 인간들은 모로우 박사 섬의 실험의 대상이 된 짐승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유사한 존재들이었다. 이는 비록 프렌딕이 모로우 박사처럼 동물을 대상으로 어떤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해 박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모로우 박사와 프렌딕에게는 현실에서 발견될 수 없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강한 열망이 존재하고 이는 그들이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확신과 열망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프렌딕은 인간에 대한 희망과 도덕적 메시지 그리고 과학으로의 몰두를 통해 자신이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매몰되었음을 드러내게 된다.

나는 낮에는 독서하고 화학 실험에 열중한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여러 밤에는 천문학 연구를 한다. 나는 인간들이 겪는 나날의 근심과 죄와 문제들 속에서 아니라, 방대하고 영원한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간들 내부에 존재하는 동물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과 고독 속에서 내 이야기는 끝이 난다.

My days I devote to reading and to experiments in chemistry, and I spend many of the clear nights in the study of astronomy. There it must be, I think, in the vast and eternal laws of matter, and not in the daily cares and sins and troubles of men, that whatever is more than animal within us must find its solace and its hope. I hope, or I could not live. And so, in hope and solitude, my story ends. (131)

비록 프렌딕이 런던으로 돌아와서 인간 문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모로우 박사의 섬에서 그가 목격한 짐승 인상

들의 모습들이 투영되는 경험을 한다. 교회 목사의 설교가 마치 모로우 박사의 섬에 존재했던 원인의 횡설수설하는 소리와 같다고 느끼며, 도서관에서 책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인내하는 짐승들과 같고, 스스로도 뇌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 받고 있는 “운도병에 걸린 양”(131)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가능성과 희망은 동물적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가 앞서 표명했듯이,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합리적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차분한 권위”(130)이며 이는 전혀 인간 내면의 동물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학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는 여전히 과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프렌딕이 과학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얻고자 하는지는 확실히 언급되지 않는 않지만, 그가 여전히 인간 이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고, 인간 이성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공동체에 긍정적 발전을 가져다줄 것임을 믿는다는 점에서 서구 계몽주의의 사고의 틀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이 비인간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은 인간의 일상에 존재하는 고통, 근심, 도덕차원에서 악의 문제이다. 그러나 프렌딕은 이러한 도덕적 차원이 아닌 세계와 우주의 비밀을 과학과 인간 이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는 지식과 앎을 통해 개인적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동물이나 타자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인간 동물에 가하는 인간의 폭력과 가혹한 실험을 용인하고 있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라는 두 다른 종들 간의 도덕적 행동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정립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물 윤리적 접근 대신에, 프렌딕은 이성과 과학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합리적 인간의 탄생을 갈망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주체이다.

5. 나오는 말

웰스의 『모로우 박사의 섬』은 공상적이며 환상적인 과학소설의 요소를 담고 있지만, 19세기 유럽 과학계의 쟁점 중 하나였던 비인간 동물

대상 생체해부 실험의 맥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다분히 작가의 생체해부 실험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그러한 논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과학 로맨스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루는 책 하지만, 그것들은 상상력이 작동해서 이루어진 것”(H. G. Wells's *Literary* 240)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작품들은 “인간적 공감에 호소”(appeals for human sympathy)(H. G. Wells's *Literary* 241)한다고 밝힌다.

작가가 강조한 인간적 공감에 호소한다는 과학 로맨스들의 목적 역시 독자들에게 최근 동물 윤리의 맥락에서 여러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과학실험은 객관적 관찰과 인간 감정의 배제를 대상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으로 설정하고 지식의 획득을 통한 인류 복지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록 비인간 동물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웰스의 소설은 프렌딕이라는 등장인물이자 서술자를 통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자아가 타자에 대해 갖는 고통에 대해 감정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행위가 도외시되지 말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물 윤리 분야에서 강조하는 고통 받는 비인간 동물들에 대한 감정이입은 단순히 자아대 타자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작용하는 연민이나 공감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고유성과 존엄성 그리고 권리를 지닌 비인간 동물에 대한 존중에서 인간이 동물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렌딕의 감정적 공감의 표현 행위는 박사의 섬에서 실험 대상이 된 동물들을 포함해서 인간 짐승들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결여한 불완전한 감정이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렌딕은 모로우 박사와 마찬가지로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과학적 탐구가 결국에는 인간에게서 동물성을 개조시켜 계몽되고 문명화된 사회를 구축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는 인간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ABSTRACT]

Animal Ethics and the Limits of Empathy in *The Island of Doctor Moreau*

Koo Seung-bo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empathy in H. G. Wells's *The Island of Doctor Moreau* from the perspectives of anthropocentrism and of animal ethics. The nineteenth-century scientific experiments of vivisection on animals sparked controversial debates over the legitimacy of the matter of inflicting inhumane pain on the animals. Wells's scientific romance invites the reader to interrogate the rationale that scientists must adopt dispassionate attitudes toward the experiment animals. Doctor Moreau in the novel exemplifies a scientist preoccupied with the idea of human supremacy, believing that science will ultimately create perfect and ideal humanity exempt from animalistic instincts. His self-obsessed pursui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his hideous enactment of vivisection on animals can be regarded as justifying the domination of humanity over nonhuman animals. Recent studies on animal ethics has shed light on the rights of nonhuman animals and their dignity as well as on the necessity of eliminating pain on animals inflicted by humans. Through the lens of animal ethic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cept of empathy, an attempt to connect one with another person in order to understand her emotions and feelings, this paper sees Edward Prendick as a character and narrator who reveals the limits of empathy, not only because he seeks to preserve his own life under the potentially precarious circumstances but also

because he has a firm belief that science will defend civilized society immune from animalistic instincts.

Key words : H. G. Wells, Doctor Moreau, Vivisection, Anthropocentrism, Animal Ethics, Empathy

[참고문헌]

- Aaltola, Elisa. *Animal Suffering: Philosophy and Culture*. Basingstoke: Palgrave, 2012.
- Atwood, Margaret. Introduction. *The Island of Doctor Moreau*. Edited by Patrick Parrinder, London: Penguin Books, 2005, pp. xiii-xxvii.
- Bates, A. W. H. *Anti-Vivisection and the Profession of Medicine in Britain: A Social History*. Basingstoke: Palgrave, 2017.
- Bending, Lucy. *The Representation of Bodily Pain in Late Nineteenth-Century English Culture*. New York: Oxford UP, 2000.
- Bernard, Claud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xperimental Medicine*. Trans. Henry Copley Greene. New York: Dover, 1957.
- Bernstein, Mark. *The Moral Equality of Humans and Animals*. Basingstoke: Palgrave, 2015.
- Bloom, Paul.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New York: HarperCollins, 2017.
- Braun, Gretchen. "Empathy, Anxiety, and the Boundaries of Humanity: Vivisection Discourse and *The Island of Doctor Moreau*." *Studies in the Novel* 51.4 (2019): 499-522.
- Brome, Vincent. *H. G. Wells: A Biography*. Kelly Bray, Cornwall: Stratus Books, 2001.
- Crary, Alice, and Lori Gruen. *Animal Crisis: A New Critical Theory*. Cambridge: Polity, 2022.
- Gruen, Lori,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Chicago: U of Chicago P, 2018.
- . *Entangled Empathy: An Alternative Ethic for Our Relationships with Animals*. New York: Lantern Books, 2015.
- Harris, Mason. "Vivisection, the Culture of Science, and Intellectual Uncertainty in *The Island of Doctor Moreau*." *Gothic Studies* 4.2(2002): 99-115.
- Hoad, Neville. "Cosmetic Surgeons of the Social: Darwin, Freud, and Wells and the Limits of Sympathy on *The Island of Dr. Moreau*." *Compassion: The Culture and Politics of an Emotion*. Ed. Lauren Berlant. New York: Routledge, 2004. 187-217.
- Kasperbauer, T. J. "Rejecting Empathy for Animal Ethics."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18.4(2015): 817-33.

Linett, Maren Tova. *Literary Bioethics: Animality, Disability, and the Human*. New York: New York UP, 2020.

Nietzsche, Friedrich. *Thus Spoke Zarathustra*. Trans. R. J. Hollingdale. London: Penguin Books, 2003.

Nussbaum, Martha.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Cambridge: Harvard UP, 2007.

Parrinder, Patrick. ed. *H. G. Wells: The Critical Heritage*. New York: Routledge, 1972.

Regan, Tom. *Defending Animal Rights*. Urbana: U of Illinois P, 2001.

Vint, Sherryl. ed. *After the Human: Culture, Theory, and Criticism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P, 2020.

---. "Animals and Animality from the Island of Moreau to the Uplift Universe." *Th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2007. 37.2(2007): 85-102.

Wells, H. G. *H. G. Wells's Literary Criticism*. Ed. Patrick Parrinder and Robert Philmus, Sussex: Harvester Press, 1980.

---. *The Island of Doctor Moreau*. 1896. Ed. Patrick Parrinder, London: Penguin Books, 2005.

White, Paul H. "The Experimental Animal in Victorian Britain." *Thinking with Animals: New Perspectives on Anthropomorphism*. Ed. Lorraine Daston and Gregg Mitman. New York: Columbia UP, 2005. pp. 59-82.